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김 윤 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달력의 마지막 한 장, 12월이 눈 앞에 펼쳐졌다. 새 달력을 구해서 1월을 펼쳐놓은 일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다.

누구나 새해를 시작할 때는 이런저런 많은 계획을 세운다. 세운 계획을 100%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백퍼센트 달성한 사람은 남다른 노력을 한 사람이다. 계획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 어떤 장애로 중지한채로 기다리는 사람 등 사람마다 자기만의 구체적인 사정은 모두 다를 것이다.

근대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 합리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사유(思惟)할 수 있는 존재라는 주장은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위에서 성장과 관찰, 연구와 대화를 통하여 오늘날 우주로 날아가는 눈부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나는 '인간은 꿈꾸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생각 중에서 꿈은 독특한 특징과 지향을 갖고 있다. 꿈은 절망에서 희망을 보고, 고난에서 극복을 지향하며, 본질을 꿰뚫어보는 용기와 지혜를 낳는다. 인간은 꿈꿀 수 있기에 위대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요, 희망의 존재다.

푸른 나뭇잎이 낙엽되어 떨어지고 빈 나뭇가지로 서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은 진지해지고 철학적인 사색을 갖게 된다. 흙(뿌리)으로 돌아가서 썩는 나뭇잎은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간의 갈 길을 해마다 거르지 않고 어김없이 가르치고 있다. 힘든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실의에 빠지거나 자만심에 들떠 있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한다. 연말 송년회 등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선후배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

다는 말이다. 어제도 대학 동문들의 모임에 갔더니, 머리에 서리가 내려서 하얀 백발이 되고, 주름진 얼굴에 머리까지 벗겨진 모습들을 보았다.

남의 산에 있는 돌을 보고도 배우고 깨닫는다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 생각한다.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 느낀다. 세월은 흘러가는 유수(流水)처럼, 손 화살처럼, 돌아가는 물레살처럼 빠르게 흘러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도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다. 덧없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세월을 타할 일 이 아니고, 무심한 세월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내가 존경하는 영광 출신 철학자 정종(鄭鍾, 1915~2016) 박사의 말은 지금도 나의 심금(心琴)을 울리고 있다. 전남대와 동국대, 원광대 철학과 교수를 했고, 2010년 1월 23일(토),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흥사단 강당에서 주최했던 제42회 문학강연 및 시 낭송회의 강사로 초청했다. 95세의 노(老)철학자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동·서양의 철학과 문학을 통달한 평생의 삶의 철학을 사자후(獅子吼)로 토론했다. '모든 순간 순간을 최후로 알고 최선을 다하라'는 요지였다.

세월도 무상하고 인생도 무상하다. 이 덧없는 무상함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 무상(無常)하다는 것은 모든 것은 변화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현대철학의 주류인 실존주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고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2011년 2월 23일(수), 호남신문 독자를 처음 만났지도 어언 13년이 되었다. 산천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지났다. 호남신문도, 독자 여러분도, 필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몇 개월의 휴식 후에 다시 만난 독자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칼럼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

기고

중독사고 주의 당부

윤 예 심 담양소방서서장



겨울철 실내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만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일산화탄소(CO)로 생명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

겨울철이면 반복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율해도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얼마 전 충북 영동의 캠핑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발견 당시 텐트 안에는 숯불 등을 피운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사건 전날에도 경기도 여주시 한 캠핑장에서 50대 부부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고 또한 텐트 안에 숯불을 피운 화로대가 발견되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처럼 실내용 캠핑카, 텐트 등에서 화덕·가스 등을 이용한 난방기기를 사용하면 좁은 공간에서 산소가 연소하고 일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날씨가 쌀쌀해지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캠핑 차박 등으로 인해 텐트 안에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료가 탈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기체로 인지가 어렵고 소량의 노출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까?

예방 방법으로는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 확인 및 내부 이물질 제거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 설치 ▲밀폐된 장소(텐트·차량 내부)에서 가스난로 등 가스용품 사용 금지 ▲캠핑·여행 시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사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추운 겨울 즐거운 캠핑도 좋지만 한순간의 실수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에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honam@naver.com

'불조심 강조의 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기고

김 태 우 곡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매년 11월은 전국 모든 소방서가 '불조심 강조의 달'을 기획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달이다. 곡성소방서도 곡성군 주민을 위한 각종 화재 예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곡성군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전방위 홍보를 펼치고 있다.

곡성소방서가 관할하는 곡성군 내에는 많은 기초생활수급 가정,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 가구가 존재한다. 취약계층 가구를 우선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곡성군 6,536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가구에 주택용소방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각 기관과 협의하여 보급 및 사후관리에 힘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소방청 화재집계 비율 중 주택화재는 단연 1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은 모든가구에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심지어 취약계층 가구의 주

택화재 인명피해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기에 더욱더 많은 가구에 보급하여야 하며 보급된 소방시설의 사후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야할 것이다. 각 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더라도 화재로 인한 많은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곡성군은 특이나 고령인구가 많아 시골주택에서 실화에 의한 화재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했다. 2017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든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홍보하였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듯하다. 그렇기에 이제는 본인의 안전, 주변 가까운 친인척, 친구, 부모, 형제 등 주변 사람들을 위해 다른 선물이 아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매년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을 맞이하길 바래본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